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김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부장)

21세기 들어서 전통적인 '국력'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의 '신공공외교'는, 외교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에 있어서 다양하고 IT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서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와 대화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20세기의 공공외교와도 구별된다.

공공외교의 하위형태로서 포럼외교는, 일반 대중보다는 여론선도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을 매체로 하여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포럼외교는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어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적 반향효과가 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포럼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조직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성 포럼이 아니라, 소규모로 조직되어 대화와 의견교환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실형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외교목표의 설정과 그 실천을 국가, 지역 및 이슈 영역에 따라 세분화시키는 'Grid Approach'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적 가치만을 설파하는 일방적 PR 대신 공통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포럼이 되어야 하고,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불가피한 산발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교목표와 수단, 주체, 매체, 대상에 따른 규격화된 포럼외교의 '정책 모듈(policy module)'을 사전에 개발하여 이러한 모듈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목 차

- 1. '신공공외교'의 대두
- 2.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 3. 포럼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가. 이벤트성 포럼 vs. 내실형 포럼
 - 나. 국가, 지역 vs. 이슈(Grid Approach)
 - 다. 보편적 가치 / 이슈 지향 포럼
 - 라. 사후관리와 네트워크 구축(network approach)
 - 마. Modular approach
- 4. 부록: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포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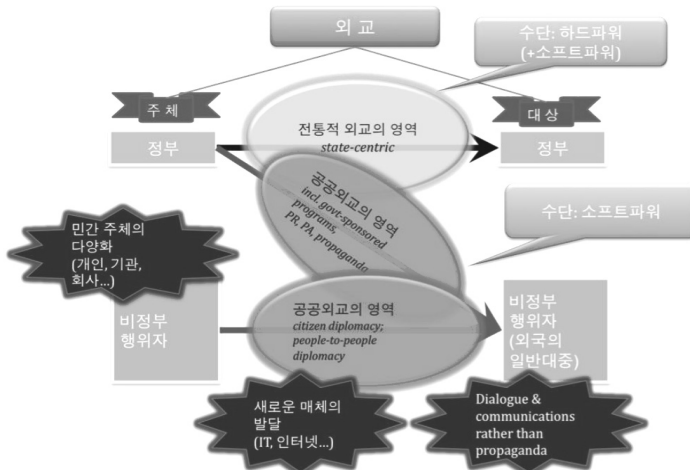
1. '신공공외교'의 대두

-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공공외교는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총칭하며, 이미 지난 세기에 국가 대 국가 정부차원의 외교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크게 활성화된 바 있음. 특히 냉전기에 소련권에 대한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공산권의 몰락과 더불어 점차 그 효용성이 소진된 것처럼 보였음.
- 21세기 들어서,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전통적인 '국력'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신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미국과 같은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른바 '신흥시장국가'들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
- 공공외교가 '외국의 일반 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간 공식외교인 전통적 외교와 구별됨. 그러나 공공외교는 외교의 대상 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전통적 외교와는 구별됨.
 - 전통외교가 소프트파워는 물론 하드파워를 주 자산으로 사용하는 외교인데 반해서, 공공외교는 하드파워가 아닌, 가치나 제도 등의 소프트파워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중 특히 문화자산이라는 연성파워 자산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국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제반 활동을 문화외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음.
 - 따라서 외교활동을 그 수단적 자산과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곧 공공외교는 연성파워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자산, 특히 '지식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을 매개로 외국의 대중을 주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21세기의 '신공공외교'는 전통외교는 물론, 20세기의 공공외교와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됨.
 - 첫째, 외교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의 다양성임.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민주화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정부행위자 이

외에 국제기구, NGO, 기업, 심지어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 국가 행위자가 공공외교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음.

- 둘째, 기술혁신, 특히 IT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매체(컴퓨터, 인터넷 등)가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정보 및 지식의 확산이 가속화되었음. 또한 구세기의 공공외교는 주로 일방향이었고 수직적인 PR이나 캠페인의 성격이 강했던데 반해서, 21세기의 공공외교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와 대화가 중시되고 있음(<그림 1>, <표 1> 참조).

<그림 1> 전통외교 vs. 공공외교-주체, 대상, 수단



출처: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표 1>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공공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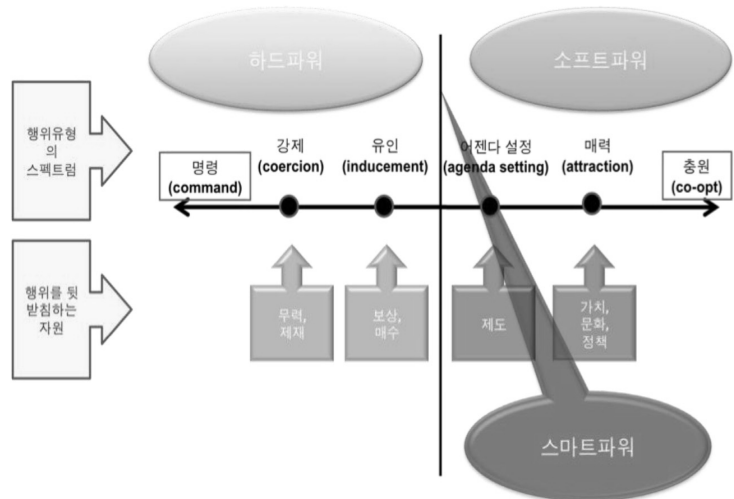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민간주체의 다양화, 정부
대상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전통적 정부간 협상, 대화	PR, 캠페인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Relation type	수평적(정부간)	수직적(top-down), 일방적(unilateral)	수평적, 쌍방향적(bilateral) 교류 및 대화

21세기 들어서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신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소프트파워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외교를
실행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타인의 자발적 동의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힘”**

- 공공외교는 또한 그 매체(외교행위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자산), 주체 및 대상에 따라서 다시 하위개념으로서의 세분화가 가능하며, 특히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한 하위개념으로서 “문화적 자산을 매체로 외국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로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외교를 실행하는 과정(public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r flow)에 사용되는 ‘자산(assets, raw materials 또는 substance)’으로서, “명령(command), 강제(coercion), 또는 유인(inducement)”의 행위 없이 타인의 자발적 동의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힘”을 의미하며,¹⁾ 이는 다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컨대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경제적 가치와 제도’가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모방하고자 하는 매력이 있을 경우 이는 그 국가의 중요한 소프트파워 자산이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관광자산이나 문화유산이 타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그들의 호의와 관심을 유발할 경우, 이는 곧 그 국가의 관광외교나 문화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됨. 또한 특정 국가의 언어나 교육, 학문적 자산,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인적 자산(human capital) 역시 외국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림 2>는 소프트파워의 여러 자산 종류에 따라 공공외교의 영역

〈그림 2〉 공공외교의 자산/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



<그림 3> 소프트웨어의 자산 종류에 따른 공공외교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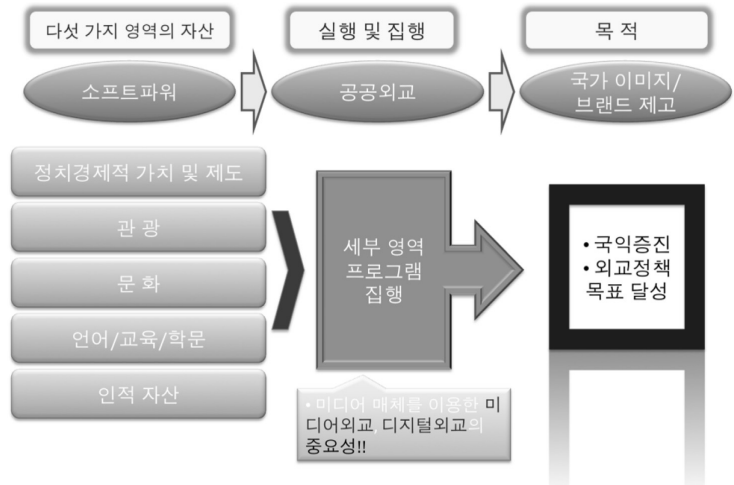
출처: 저자.

을 분류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공공외교란 곧 자국의 이미지나 국가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실행 또는 집행과정’(implementation process)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림 3>은 소프트웨어와 공공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국가브랜드/이미지 제고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 흔히 문화적 유산이나 관광자원 등 소프트웨어를 경제학에서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에서처럼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원(endowed resources)’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개념처럼 후천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가꾸어 나가는 측면이 중요함. 특정 국가의 가치나 제도, 인적 자산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문화나 관광자원 역시 새로운 패키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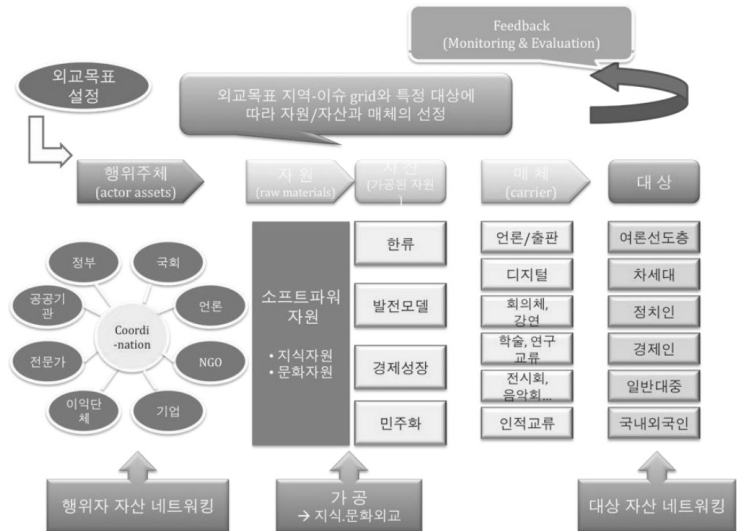
공공외교란 자국의 이미지나 국가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실행 또는 집행과정’

〈그림 4〉 공공외교 실행 과정(implementation process / flow)



출처: 저자.

〈그림 5〉 한국 공공외교 정책의 전략적 맵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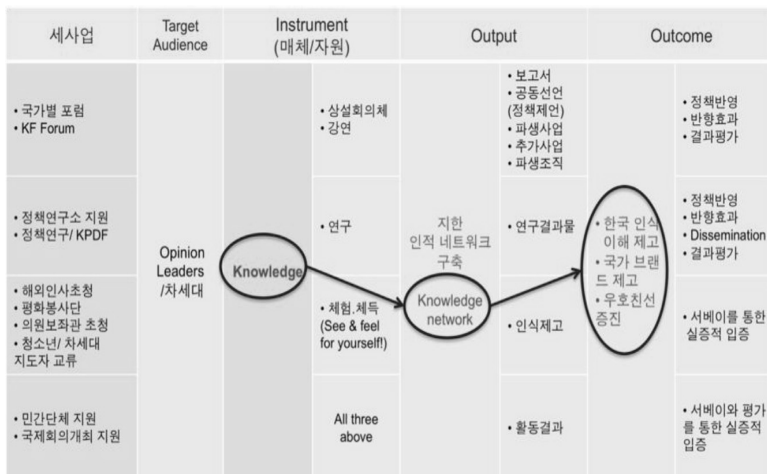


2.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 ‘포럼’의 사전적 의미는 ‘토론의 장소’ 또는 ‘토론을 위한 모임’을 지칭. 토론의 모임에서 토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식’이며, 토론에 참가한 자들은 특정 주제나 이슈,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지식’의 형태로 전달. 이러한 의미의 포럼외교란 곧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공공외교의 수단 또는 매체로 사용하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를 지칭함.
- 따라서 공공외교의 한 하위형태로서 포럼외교는 (1) 일반 대중보다는 전문가, 정책관련자, 지식인 등 여론선도계층을 대상으로, (2) 지식을 매체로 하여 (3)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4)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어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행위를 의미함.
 - 이러한 의미에서의 포럼외교는 대상과 어젠다 설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효과가 크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포럼의 기능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특정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상대측의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상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함. 특히 포럼을 주관하고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포럼의 어젠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어젠다가 국제적 관심과 반향을

포럼외교란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공공외교의 수단 또는 매체로 사용하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를 지칭

〈그림 6〉 포럼외교의 매체와 목표



포럼은 국가간 현안과 협력을 다루는 양자포럼, 지역적 이슈를 다루는 지역포럼, 그리고 다자적 이슈 중심의 다자포럼으로 분류될 수 있음

불러일으킬 여지가 클 경우, 포럼의 어젠다 설정력은 공공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음.

- 포럼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포럼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특히 포럼의 지속성이 전제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특정 포럼이 지속성을 가질 경우 이는 국가 간의 제도화된 채널로서도 역할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매체가 될 수 있음.
- 세 번째, 포럼은 국가 간 교류의 심화 및 확대를 확대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 특정 어젠다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모인 포럼의 해당 분야 참석자들이 포럼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을 떠나서 새롭게 자신들의 교류관계를 확립할 경우 이는 포럼을 통해서, 포럼으로부터 파생된 국제교류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포럼은 국가 간 특정 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적 인풋의 연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포럼의 형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서 양자포럼 또는 다자포럼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은 지역포럼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양자포럼은 주로 국가 간의 현안 이슈와 협력강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지역포럼은 지역적 이슈를, 다자포럼은 다자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포럼. 다자적 이슈 중심 포럼의 대표적 예는 다보스포럼이지만, 이후 다보스포럼의 성공에 힘입어 특정 국가가 주관하는 다자 이슈 포럼이 등장하고 있음.
- <표 2>에서 보듯 포럼의 핵심 매체인 지식. 지식의 내용적 성격과 그 전달 양식(거래양식)에 따라서 두 가지 준거 즉, 배타성 (포럼이 개방적이고 비 배타적인가의 여부)과 경쟁적 소모(포럼의 내용이 경쟁적으로 소모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포럼의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표 2〉 포럼의 핵심 매체인 지식, 지식의 내용적 성격과 그 전달 양식(거래양식)

	배타성	비배타성
경쟁적 소비	사유재적 포럼	공동재적 포럼
비경쟁적 소비	클럽재적 포럼	공공재적 포럼

- 포럼이 폐쇄적이고 그 내용(지식) 역시 경쟁적으로 소모되는 포럼은 상업적인 사유재적 성격을 가진. 투자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많은 상업적 포럼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포럼의 내용 즉 포럼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은 지적 소유권, 특허권, 컨설팅 등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공급되며 유료 참가자 또는 제한된 참가들에 의해서 등으로 경쟁적으로 소비됨.
 - 한편 공동재(common goods)의 경우처럼 포럼이 개방적이고 그 내용과 목적 역시 개방적이나 사유재의 경우처럼 그 내용이 지적 소유권, 특허권으로 제한되어 경쟁적 소비의 형태를 띠는 경우임. 리눅스(Linux) 운영체제는 오픈 소스의 공동재적 성격을 띠지만, 그 내용을 변화시켜 상업화된 리눅스 운영체제로 전환, 판매하는 것은 공공재적 지식의 상업화로 경쟁적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되는 예가 될 수 있으나, 포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적다할 것임.
 - 이들과는 달리 비배타성과 비경쟁적 소모의 특징을 갖는 공공재적 포럼이 포럼외교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의 포럼임. 이 경우 포럼의 내용이나 결과가 공익을 목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그 내용이나 결과가 경쟁적으로 소모되지도 않음.
-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은 일반 국제학술회의와는 그 대상과 목적의 측면에서 뚜렷이 구분됨.
- 학술회의가 주로 학자들 간의 학문적 견해의 발표와 교환 및 학술적 교류를 위한 것인데 반해서, 포럼외교는 그 대상이 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정계, 관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되며, 공공외교의 일반 목적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이해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음.
 - 따라서 국제학술회의나 특정 분야의 국제전문포럼들은 포럼외교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포럼외교가 비배타성(non-excludibility)과 비경쟁적 소비(non-rivalrous consumption)로 특징지어지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이 강한데 반해서, 이들 회의체들은 비경쟁적 소비의 특징은 가지나 회의의 내용이나 결과가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 국한되는, 즉 배타성을 가지는 ‘클럽재(club goods)’의 성격을 가짐. (배타성과 경쟁적 소모를 특징으로 하는 사유재적 포럼도 존재) 물론 이와 같은 각 분야나 집단들의 클럽재들의 사회 전체적 총합은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므로 여기에서는 포럼외교의 총체적 측면에 주안하여 이들 회의체나 포럼들을 포럼외교의 하위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포럼의 내용이나 결과가
공익을 목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그 내용이나
결과가 경쟁적으로
소모되지도 않기 때문에
공공재적 포럼이
포럼외교에 가장 부합**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내실형 포럼이 바람직 하지만, 단기적인 임팩트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벤트성 포럼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음

3. 포럼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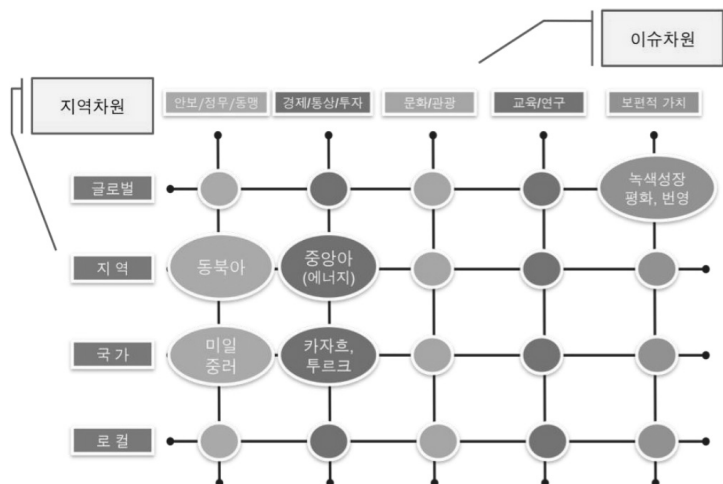
가. 이벤트성 포럼 vs. 내실형 포럼

- ‘이벤트성 포럼’은 단기적 임팩트 효과에, ‘내실형 포럼’은 중장기적으로 스며드는 효과(permeation)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양 포럼은 그 목표와 규모, 형태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전자는 통상 대규모로 조직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끄는 반면,²⁾ 후자는 소규모로 조직되어 대화와 의견교환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내실형 포럼이 바람직 하지만, 단기적인 임팩트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벤트성 포럼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음.
- 이벤트성 포럼은 시의에 따라, 주제에 따라 이미 많은 국내기관들이 시행하고 있으나, 내실형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포럼외교 효율화를 위한 관건 중의 하나임.

나. 국가, 지역 vs. 이슈(Grid Approach)

- 외교목표의 설정과 그 실천을 국가, 지역 및 이슈 영역에 따라 세분화시키는 ‘Grid Approach’가 전제되어야 함.
- 예컨대 한국의 외교목표를 <그림 7>에서 보듯 지역 및 이슈 차원으로

<그림 7> 외교정책 목표의 grid: 지역 vs. 이슈



로 세분화할 때 각 이슈와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겨나고, 동 교차점에서 각 이슈에 해당되는 대상이 부각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전통적 외교와 공공외교, 포럼외교 차원의 정책안이 모색되어야 함.

다. 보편적 가치/이슈 지향 포럼

- 공통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 하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적 가치만을 설파하는 것은 일방적인 PR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는 20세기적 패러다임으로서 이미 시대착오적임.

라. 사후관리와 네트워크 구축(network approach)

- 민간이 외교의 주체는 물론 그 대상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외교 주체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 그 대상 역시 분산되어 있으므로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따라서 공급 및 수용 양 측면에서 공히 이들 행위자 자산을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를 지속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 이는 즉 공공외교 주체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을 상호간 네트워크로 묶어서 그들의 활동을 ‘조정(coordinate)’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의 측면에서 역시 다양한 민간기관이나 개인들을 상호 연결시켜주고 이렇듯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manage)’한다는 것을 의미함. 물론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가 일방적인 ‘부과(imposition)’의 형태로 될 수는 없으며,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음.

마. Modular approach

-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전통외교의 경우에서처럼 일사불란한 정책결정, 교섭 및 대화 등을 통해서 소기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나 효과는 산발적이 되기 쉬움.
- 산발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교목표와 수단, 주체, 매체, 대상에 따른 규격화된 포럼외교의 ‘정책모듈(policy module)’을 사전에 개발하고, 이러한 모듈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공급
및 수용 양 측면에서
공히 이들 행위자 자산을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

4. 부록: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포럼 사업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제고 및 국내외 여론주도층 인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음.³⁾ 2010년 현재 15개 포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포럼들은 <표 3>과 같으며 국가별포럼과 지역포럼, 주관포럼과 지원포럼으로 구분됨.
 - 국가별포럼과 지역포럼에는 매년 양국의 정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사회문화계 등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일부 포럼은 공동성명 등으로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 교류확대와 심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포럼에는 2,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였으며(<표 4> 참조), 그 분포는 <표 4, 5>와 <그림 8, 9>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3> 2010년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가포럼 및 지역포럼

국가/지역	주관/지원	포럼명칭	상대측 기관 파트너
국가별포럼	주관포럼	6차 한스페인포럼	Casa Asia
		4차 한이태리포럼	이태리 외교부
		4차 서울-워싱턴포럼	Brookings Institute
		1차 한호대화	Australia Korea Foundation
		11차 한러포럼	Russia Diplomatic Academy
		9차 한불포럼	IFRI(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18차 한일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15차 한중미래포럼	인민외교학회
		9차 한독포럼	전 독한의원친선협회장인 코식차관 담당
		5차 한브라질포럼	브라질 외교부

	지원포럼	18차 한영미래포럼	영한미래포럼
		8차 한카나다포럼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9차 한인도포럼	ICRIER(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지역포럼	주관포럼	5차 한아세안협력포럼	ISIS(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한 EU포럼(예정)	슈만재단

〈표 4〉 1993-2010 11개 국가별포럼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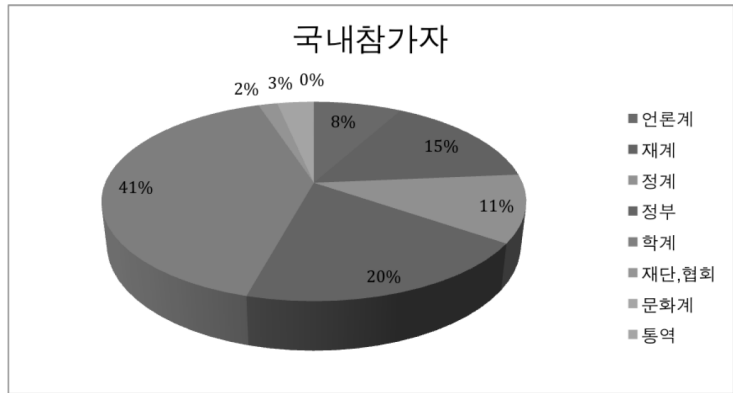
국가	국내참가자	국외참가자
서울워싱턴	46	71
한일	142	118
한중미래	106	92
한러	139	141
한독	97	82
한불	123	179
한스페인	37	44
한아세안	84	60
한이탈리아	36	31
한브라질	44	46
한호	14	14
합계	868	878

〈표 5〉 1993-2010 11개 국가별포럼 참가자 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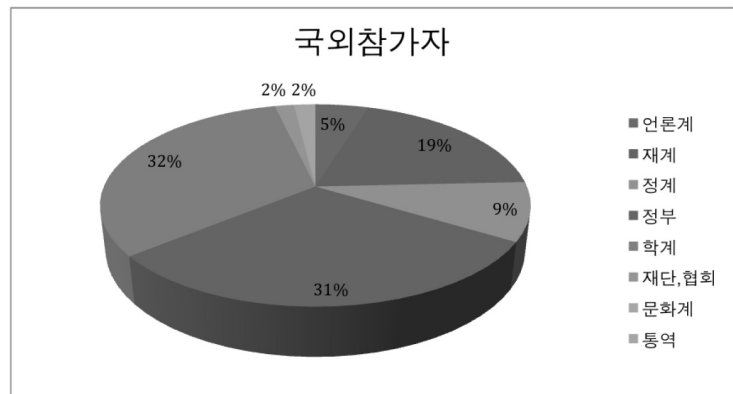
분야	국내참가자	국외참가자
언론계	70	42
재계	135	171
정계	95	82
정부	171	268

학계	353	283
재단, 협회	15	15
문화계	28	17
통역	1	
합계	868	878

〈그림 8〉 1993-2010 11개 국가별포럼 국내 참가자 분야별 분포



〈그림 9〉 1993-2010 11개 국가별포럼 국내 참가자 분야별 분포



- 국가 및 지역포럼은 통상 1일~1.5일에 걸친 3~5개의 세션으로 구성됨. 각 세션의 어젠다는 (1) 정치·외교·안보, (2) 경제·통상, (3) 투자·산업협력, (4) 문화·교육협력 등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들어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등의 글로벌 이슈들을 포럼의 어젠다로 채택하고 있음. 포럼의 참가자들은 <표 5>와 <그림 8, 9>에서 보듯, 정계, 정부, 재계, 학회,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이 각 세션의 어젠다에 대해 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의견을 개진, 교환하고 파생사업을 통해서 교류의 확대 및 심화를 모색하고 있음.
- 재단이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국가 및 지역포럼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포럼’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지역별 포럼은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 대상국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지역과의 정례화된 채널로 역할하고 있음.
 - 이들 포럼들 중 특히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은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4회째를 맞게 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참가자들 간 분야별 교류 확대(교육,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강화, 국민건강증진, 보건의료분야 등) 및 knowledge sharing, 인적네트워킹 구축의 채널로 역할하고 있음.
- 재단은 또한 한국인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해외 저명인사들의 국내 강연회 시리즈인 ‘KF Forum’을 2008년 이래 개최해 오고 있음.

<표 6> 2009년 외교통상부 주관 지역별 포럼

	사업명	담당과	참가자수	주관
1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중남미 협력과	중남미 17/ 한 672	외교부, 기재부, 지경부, 국토부, 문관부, 환경부, IDB
2	한-동남아 에너지전문가개발포럼	동남아과		
3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유라시아과	중앙아 42/ 한 19	외교부, 지식경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남북러 극동시베리아 협력 포럼	유라시아과	러 46/ 한 20	외교부

5	한-아프리카 정상급 포럼	아프리카과	아프리카 16/ 한 20	외교부 Africa Union
6	한-중동 협력 포럼	중동과	중동 15/ 한 12	외교안보연구원 주관/ 외교부, 중동학회 주최

〈표 7〉 2009년 외교통상부 주관 지역별 포럼

	사업명
1	한동남아 에너지전문가개발포럼
2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3	한중양아 협력포럼
4	남북러 극동시베리아협력포럼
5	한중동협력포럼

〈표 8〉 KF Forum 2008~2010

구분	일자	강연자	강연주제
제1차	08.1.8	띠에리 드 몽브리알 (Thierry de Montbrial)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제2차	08.2.12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스마트 파워와 테러와의 전쟁
제3차	08.3.13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전 미국 대통령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4차	08.4.11	존 후드(John Hood) 옥스퍼드대 총장	21세기 대학교육개혁
제5차	08.5.27	하산 아부 니마(Hasan Abu Nimah) 요르단 왕립종교연구소장	문명의 충돌은 일어날 것인가? 이슬람과 타문화권 간의 이해
제6차	08.7.22	마츠우라 고이치로 (Ko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	문화 다양성과 유네스코
제7차	08.8.14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북미 아시아학회 회장	미국 내의 한국학: 현황과 향후 과제
제8차	08.9.3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	글로벌 이슈와 한미관계
제9차	08.10.23	테오 쉰머(Theo Sommer) 독일 '디 자이트(Die Zeit)'지 대기자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의 한독관계 재조망
제10차	08.11.7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미국 국무장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미관계
제11차	08.12.15	얀 멜리센(Jan Melissen)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클링겐델' 외교연구프로그램 책임자	미들과워 국가들의 공공외교 전략: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12차	09.2.18	유명환(Yu Myung-hwan) 외교통상부 장관	2009년도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
제13차	09.4.29	키스 디니(Keith Dinnie) 템플대 일본캠퍼스 경영대 교수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한국의 국가 전략: 이론과 비교적 시각
제14차	09.6.3	베르트 엔גר(Bernd Engler) 독일 튀빙엔대 총장	독일 고등교육의 개혁과 전망
제15차	09.8.11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호주 총리	21세기 한-호주 관계의 미래
제16차	09.8.20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미국 하원의장	북핵사태에 즈음한 한미관계 의 현황과 미래비전
제17차	09.9.18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 미국 RAND 연구소장	미국 정치 양극화의 위기
제18차	09.10.7	알렉산더 딘킨 (Alexander Dynkin) 러시아 IMEMO 소장	현 세계 불안과 러시아의 도전
제19차	09.10.13	폴 웨블리(Paul Webley) 영국 SOAS 총장	21세기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의 위기
제20차	09.10.23	앨리슨 리차드 (Alison Richard) 케임브리지대 총장	대학과 파트너십
제21차	10.2.3	현인택(Hyun In Taek)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현황
제22차	10.3.9	강상중(姜尙中) 일본 동경대 교수	在日 論客 姜尙中이 본 新韓日關係
제23차	10.4.7	존 J. 햄리(John J. Hamre) CSIS 소장 겸 CEO	오바마 행정부 1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
제24차	10.6.1	짐 웹(Jim Webb)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도전
제25차	10.6.25	하마다 준이치(濱田 純一) 일본 동경대 총장	世界化 時代 高等教育의 挑戰
제26차	10.7.14	존 쿠포르 (John Agyekum Kufuor) 전 가나 대통령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한-아프리카 관계
제27차	10.8.16	로버트 J. 짐머 (Robert J. Zimmer) 미국 시카고대 총장	연구중심대학의 당면과제와 도전
제28차	10.9.3	Willem Wim Kok 전 네덜란드 총리	네덜란드 노사정 협약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제29차	10.9.14	Jacques Legrand 프랑스 INALCO 총장	볼로냐 프로세스와 프랑스 대학교육 개혁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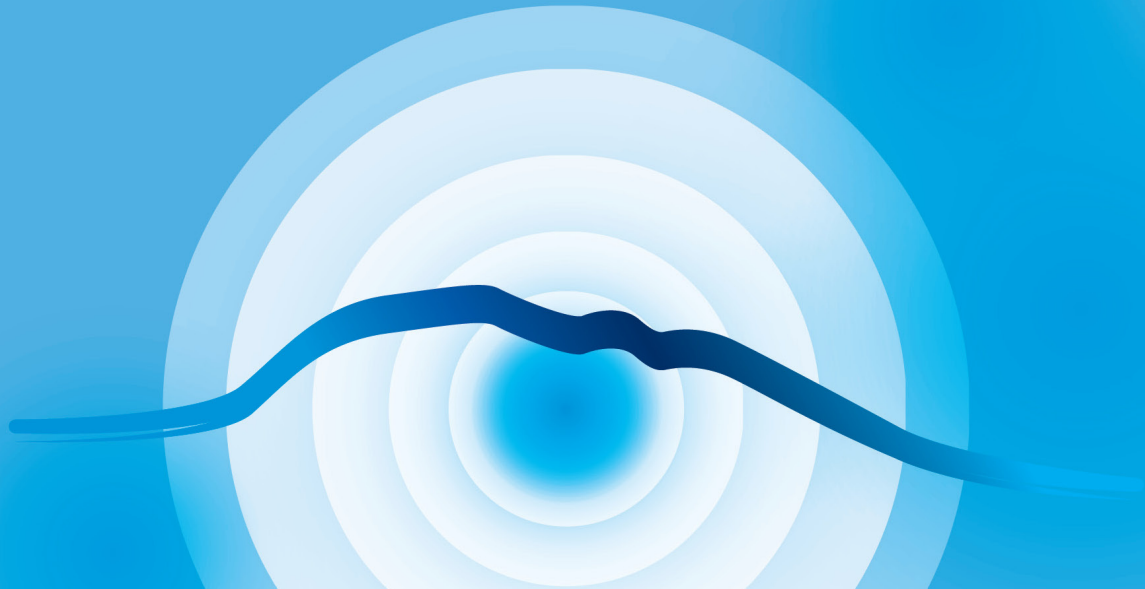
저자 약력

■ 김태환

現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 주요논문으로 “Resisting the Market: The Politics of Hierarchies and Networks in Russian Fuel and Metallurgy Industries”, “Recombinant Capitalism: Fragmented State and Associated Economy in Post-Socialism”,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재산권 이론적 접근: 소련, 러시아, 중국의 경험과 북한의 경로” 등이 있음.

주석

- 1)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2) 재단의 포럼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제1항 3호(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호(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및 5호(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3) ‘국가브랜드’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국가브랜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Anholt Index를 창안한 이 분야의 대표적 권위자 Simon Anholt는 ‘nation brand’와 ‘nation branding’의 차이를 명확히 하면서, 후자는 마케팅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가브랜드의 제고에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그는 특정 국가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 국가와 사회가 비전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과(strategy), 이러한 공유된 비전적 이미지의 실체(substance)를 구축하는 것(building reality)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실체를 국제사회에서의 행위나 국제적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상징적으로 노출시키는 것(frequent symbolic actions)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하고 있음.



The 6th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2011.5.27 ~ 29

Haevichi Hotel & Resort, Jeju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평화재단 / 동아시아재단
-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외교통상부 / 국토해양부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과총합대학원 / 제주대학교 / PRIO / 코리아 DMZ협의회 /
UN거버넌스센터 / 대한지질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